

대형산불에 냉해 피해까지...올해도 과일 '금값' 되나

사과·배 평년비 20% 이상 비싸 '역대 최악' 산불...사과 재배면적↓ 이상저온에 배 생산량 감소 우려 "소비자 부담 덜 할인 혜택 절실"

“경매장에 가도 물량이 없어 상품을 떼울 수가 없습니다. 손님 중 절반은 과일값이 비싸다며 그냥 돌아가는데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르면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양동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청과상인 김모(45)씨는 과일값 상승과 수급 불안정 탓에 하루하루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과일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며 데다가 경매장에서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허탕을 치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미 과일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인데 산불과 냉해 피해로 사과·배 등 주요 과일 가격이 더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걱정이 크다”며 “지금도 상품

이 팔리지 않아 딸기, 바나나처럼 금방 상하는 과일은 10% 이상 폐기하고 있다. 과일 수요 자체가 줄어 예년보다 판매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신선한 상품 위주로 소량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역대 최악의 산불에 이어 4월에도 눈이 내리는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통 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과일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에 따른 과일값 상승 불안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봄철 이상고온과 냉해 등 복합적인 악재로 과일 개화와 생육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 감소 우려가 제기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과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광주지역 상품 등급 후지 사과 10개 가격은 3만933원으로, 전월보다 12.68% 높았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27.5%, 평년보다는 23.86% 각각 상승한 가격이다. 배 10개 가격은 4

만7700원으로 전년보다 5.85%, 평년보다 23.45% 비쌌다.

이처럼 과일값이 이미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지역 산불 여파로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향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은 국내 사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경북 전체 재배면적의 약 20%에 달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햇사과 출하가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공급 부족은 추석이 예정된 10월 초를 앞두고 사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인한 냉해 피해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남도 서부권을 중심으로 주요 배 산지에서 배 꽃눈의 40~60%가량에서 씨방이 얼어 죽어 검게 갈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도내 배 전체 재배면적(475ha)의 75% 상당에 해당하는 359ha

에 달한다. 또 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경북 상주 등에서도 심각한 동상해로 400ha가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중순 이상고온 현상으로 배꽃이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개화했는데, 이후 아침 최저기온이 -5.2도까지 내려가는 등 기온이 영하권으로 급격히 떨어진 탓에 암술이 고사한 것이다.

과수 개화기 냉해의 경우 사과와 배는 영하 1.7도, 복숭아는 영하 1.1도 부근에서 1시간 이상 꽃눈이 저온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개화기 저온에 민감한 배는 암술머리 고사 등이 발생하면서 수확량 저조, 상품성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과일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면서 상인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동시장 상인 유모(58)씨는 “요즘은 제사상에 올릴 과일도 3개, 5개 살 것을 1개만 사가는 경우가 많다. 손님들이 시장

에 기대하는 가격이 있다 보니 최대한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손이익은 갈수록 줄어들는데 생활에 필요한 고정 지출은 그대로라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 확대와 농업인과 상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3일까지만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5000원 단위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원 충전이 가능하며 20%인 4000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행사 참여 점포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s://sale.foodnuri.go.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디자인진흥원, '기업 디자인지원 통합공고'

제품 개발·개선·상품화 등 지원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역 디자인 전문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미래 시장 선도와 시장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기업지원에 나선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내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제품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2025년도 기업 디자인지원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광주시가 시행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우수 기업 및 제품의 낙후된 디자인을 개선해 시장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지원은 총 세 가지 프로그램과 한가지 아이디어 발굴 사업으로 구성돼 △중소기업 디자인 선진화 지원 △디자인기업 브랜드 상품 개발 지원 △제품 디자인 개발·개선 지원 △선행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등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단순한 디자인 개선을 넘어, 제품 기

획, 자체 상품화, 마케팅 지원, 시제품 개발, 사용성 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아이디어 발굴 및 양산화 연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현형 지원으로 구성됐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이메일(sanup@gd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남권 소재 중소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제조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디자인기업의 자체 브랜드 상품화, 디자인 전문기업과 제조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미래 가능성 높은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까지 폭넓게 지원된다.

김용모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디자인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 지역 기업들이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전남지노위 “13개 시·군 버스 노사 임단협 분쟁 해결”

여수 등 16개사 올 노사 교섭 타결 분쟁해결전담팀 통해 전방위 지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수와 순천, 영광, 구례 등 전남 13개 시·군 16개사 시내·군내버스 노사의 2025년 임단협 교섭이 모두 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버스 노사는 그동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노동조합에서 3월17일부터 3월26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협상이 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이어져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됐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이 접수되자, 버스 분쟁해결 전담팀을 꾸린 후 각 시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협약 체계를 구축했고, 전남지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동안 노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적극적 대안 제시 및 필요시 조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전남지노위에 조정신청

한 전남 13개 시군 16개사 버스 교섭이 모두 타결돼 버스파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막을 수 있었다.

고동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까지는 위원회에 조정신청한 전남 버스 중 4~6개사는 조정이 결렬돼 왔으나, 올해에는 모든 버스 노사의 임단협이 타결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는 노사 및 관계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버스·병원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분쟁에 대해 적극적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광주·전남지역의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프랑스 하이주얼리 '프레드' 오픈

본관 2층 호남 최초 부티크 선배 브라이덜룸 등 특별한 공간 조성

광주신세계가 지난 18일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 '프레드' 부티크를 호남권 최초로 오픈했다.

광주신세계 프레드 부티크는 창립자 '프레드 사무엘(Fred Samuel)'의 남프랑스 리비에라(Riviera)에 대한 메종의 눈부신 경의를 담아 조성됐다.

프레드 사무엘에게 리비에라는 눈부신 햇살과 푸르른 바다와 하늘, 바람결에 살랑이는 야자수의 움직임으로 가득한 영감의 원천으로, 빛과 컬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프레드 부티크는 프레드만의 DNA가 담긴 대비되는 요소들의 조화로운 균형미가 돋보인다.

부티크 내 곳곳에 자리잡은 아치 형태의 디테일은 세련된 건축 요소들을 연상시키며 고전과 현대 건축의 아름다운 조화로 완성됐다.

건축물의 견고함과 대비되는 유려한 곡선의 흐름, 구조적인 선과는 대조적인 유기적이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은 프레드의



광주신세계가 지난 18일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 '프레드' 부티크를 호남권 최초로 오픈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중요한 유산이기도 하다. 넘실대는 물결을 표현한 외관 디자인, 프레드 블루의 유려한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는 공간은 찬란하게 일렁이는 리비에라의 푸른 바다를 연상시킨다.

새롭게 문을 연 프레드 부티크는 프레드 사무엘이 경험한 리비에라에서의 삶의 환희와 기쁨이 메종 특유의 예술적 감각과 모던함으로 해석됐다.

부티크 전면을 감싸는 부드러운 아이보리 컬러 파사드는 리비에라 해안의 모래

를 닮아 있다. 또한 내부를 장식하는 루프 패턴의 디테일은 프레드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인 포스텐을 연상시키며, 마치 모험 가득한 항해를 떠나는 요트를 상징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브라이덜 존은 리비에라의 상징적인 문양이자 사랑, 결합, 영원을 의미하는 3가지의 프레스코 디자인을 통해 사랑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조화롭게 재해석했다.

나다운 기자

광주상의, 지역기업 공공조달 실무교육 성료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18일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플러스 이상민 상무이사를 초청해 2025년 공공조달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시장은 2022년 196조원 규모, 국내총생산의 9.8%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2018년 141조원 대비 39% 증가했으며, 조달업체수는 2018년 40만915개사에서 2024년 57만2118개사로 42.7% 증가했으나 지역 중소기업은 정보 및 관련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포함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전자입찰 및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활용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경기침체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공공 및 민간 입찰에 대한 낙찰률과 공공조달 납품기회를 높여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광주지역 기업체 임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전자입찰 실무교육, 2부 다수공급자계약 실무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투찰금액 산정 및 낙찰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안내하며 참여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최권범 기자

제 1168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9 21 24 30 33 37	29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1억3663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255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31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